



#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 창립총회  
관련기사 및 화보 4~5면



# Young Ocean

*from* Salmon

*to* Fish Roe Products

Young Ocean has been striving to offer its clients many variety of high quality seafood from Alaska.

Please check out our full line of fresh products and make your order online at [www.youngocean.com](http://www.youngocean.com)

20233 80th Ave., S.  
Kent, WA 98032  
Tel. (253) 395-1900  
[info@youngocean.com](mailto:info@youngocean.com)



채자원(26회) · 채양식(22회)



## 서울사대부중·고 미주동창회보 [창간호]

2018년 5월 1일 • VOL. 1

### CONTENTS

- 04 | 미주총동창연합회 창립 총회
- 06 | 신축 모교교사 준공식
- 08 |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 10 | 남가주 동교회 소식
- 11 | 자랑스런 동문 2세 마이클 오
- 13 | 선농합창단 대통령상 수상
- 14 |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이중희
- 16 | 지역 동창회 소식
- 20 | 노후를 아름답게, 보람있게 김순홍/주정숙, 강인에
- 21 | 지역동창회 임원진
- 22 | 동문 수필 정종진
- 23 | 미주총동창연합회 임원진
- 24 | 영시 산책 최완섭
- 25 | 동문 자녀 기고 웬디 김
- 26 | 남가주 동창회 결산 공고
- 27 | 동창회 연회비 납부 캠페인

회장 겸 발행인 김민주(21회)  
 수석부회장 최완섭(22회)      부회장 손명희(23회)  
 감 사 권일준(20회)      재 무 김영태(24회)  
 사무처장 강태완(31회)  
 편 집 인 박용필(18회)  
 편집위원 신용철(29회) 조남중(34회) 신다정(61회)

13347 Fern Pine Circle, Cerritos, CA 90703  
 (213) 268-2301 | snubugo2018@gmail.com  
<http://social.snubugo.net>

### 발행인 인사말

##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김민주** (21회)  
 서울사대부중·고  
 미주 총동창 연합회 회장

미주 동문들의 최대 숙원이자 현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미주 총동창 연합회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3월 15~18일 창립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 회장단은 만장일치로 연합회 결성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이 이제야 비로소 한 몸이 된 것 같아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남가주와 북가주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조지아), 워싱턴 D.C., 시애틀, 필라델피아, 휴스턴(텍사스), 오레곤은 물론 캐나다까지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탄생해 동문들의 구심점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젊은 후배 동문들의 유입이 줄고, 참여가 부진하는 등 그동안 침체의 길을 걷고 있던 동창회가 이번 연합회 결성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국의 총동창회와 연계해 각종 사업을 함께 펼칠 수 있게 된 것 또한 큰 성과로 꼽힐만 합니다.

연합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선배 배님들의 협조와 조언, 특히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비 납부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광고도 게재해주셔서 동창회보가 모든 동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회장단은 모두 ‘이끄는’ 리더가 아닌 ‘섬기는’ 리더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천하부고’의 멋진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 미주총동창연합회 출범 3월 15~18일 LA서 창립총회 차기 총회는 내년 9월 뉴욕서



▲ 미주총동창연합회 신임 회장단.  
왼쪽부터 강태완(31회) 사무처장, 김인경(24회) 본국 사무처장,  
유인선(20회) 본국 총동창회장, 김민주(21회) 미주연합회장,  
최완섭(22회) 연합회 수석 부회장, 권일준(20회) 연합회 감사

북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단체가 발족했다. 남가주와 뉴욕 등 각 지역 동창회장들은 지난 3월 15~18일 모임을 갖고 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창립 총회는 LA와 멕시코 엔세나다를 왕복하는 유람선 '카니벌 이매지네이션'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열렸다. 총회에선 남가주 동창회장인 김민주(21회) 동문을 만장일치로 초대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엔 최완섭(22회, 오레곤) 동문, 부회장엔 손명희(23회, 워싱턴 D.C.) 동문, 사무처장 강태완(31회, 남가주), 재무 김영태(24회, 남가주), 감사 권일준(20회, 뉴욕) 동문을 선임했다. 이외도 서부지역 고문에 최진석(16회), 동부지역 고문에 최영태(19회) 동문이 각각 위촉됐다.

창립총회엔 본국에서 유인선(20회) 총동창회장과 김진경(24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미주총동창연합회의 발족을 축하해줬다.

연합회는 본국 총동창회와 더불어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유학 중인 모교 후배들의 현지 적응과 학업수행에 도움을 주는 연수 프로그램, 장학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미주지역 동창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다소 서먹했으나 총회가 유람선에서 열린 탓에 곧 분위기가 고조됐다. 회의는 큰 이견이 없이 회장단을 선임하고 정관을 통과시키는 등 만족스런 성과를 냈다.

한편 2차 총회는 내년 9월 뉴욕서 열기로 합의했다. 권일준(뉴욕 고문) 동문과 김승호(뉴욕 이사장) 동문이 뉴욕대회를 자청, 각 지역 회장단이 박수로 승인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총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남가주 최진석(16회) 김민주(21회) 강태완(31회)
- 북가주 안영환(18회) 부부 오레곤 최완섭(22회) 부부
- 시애틀 한영한(16회) 부부 채양식(22회)
- 오클라호마 이상강(21회) 부부
- 뉴욕/뉴저지 권일준(20회) 부부 김승호(23회) 부부



워싱턴 D.C. 손명희(23회) 부부    애틀랜타 정승원(16회)  
총동창회장 유인선(20회) 부부    사무처장 김진경(24회)

### ‘크루즈’ 총회는 신의 한 수?

◆ 창립총회에 각 지역 회장단이 대거 참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뭐니뭐니해도 ‘크루즈’ 여행이 큰 몫을 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 호텔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총회를 열었다면 과연 이처럼 많은 동문들이 모였을지 의문이라는 것. 참석자들은 “유람선 회의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니겠느냐”며 주최 측의 반짝 아이디어에 찬사를 던졌다.

### ‘통 큰 상’은 김승호 동문

◆ ‘통 큰’ 동문상이 있다면 단연 김승호 동문이 뽑혔을 터. 부부가 함께 참석한 김 동문은 참석자들에게 고급 와인을 한 병씩 줬다. 뉴욕서 호텔 등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김 동문은 내년 총회에선 이번 ‘크루즈’ 대회 못지 않은 알찬 행사를 펼쳐 보이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이기도.

### “가문의 영광이로소이다”

◆ 연합회 부회장의 중책을 맡은 손명희(23회) 동문의 소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손 동문은 “저 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라며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합회 일을 보겠다”고 다짐. 한 동문은 벌써부터 차기회장 자리를 노리고 선거캠페인을 벌이는 거 아니냐며 익살.

### “생일 축하합니다”

◆ 총회 도중 예상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다름아닌 최완섭(22회) 동문이 65회 생신을 맞은 것. 어떻게 준비했는지 주최 측이 최 동문에 고깔모자를 씌우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주자 최 동문은 감격에 겨워 눈을 채 뜨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

최 동문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며 소감을 피력. 최 동문은 연합회 수석 부회장의 ‘감투’도 써 이래저래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 졸지에 ‘이산가족’된 부부

◆ 부부가 참석했으나 뜻하지 않게 각 방을 쓰게 된 안타까운 사연도. 애틀랜타의 정승원(16회) 여동문이 혼자 참석해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그렇다고 독방을 줄 수도 없고 해서 안영환(18회) 동문 부부를 강제로 갈라 놓은 것. 안 동문은 최진석(16회) 동문과, 정 동문은 안 동문 부인과 ‘합방’을 하게 됐다. 졸지에 아내와 헤어져 ‘이산가족’이 된 안 동문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싱글 병글.

## 총동창회장 축하

# 적극적인 참여로 하나되자



유인선 (20회)  
제 25대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천하부고 미주지역 선후배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 하나로 이루어지듯, 우리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천하부고의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갑시다. 70여 년의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2만 7천여 동문들 가슴에 마음의 등불이었던 우리 모교의 교훈을 되새기며 인사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 올바른 사람이 되자.
- \* 튼튼한 사람이 되자.
- \* 따뜻한 사람이 되자.
- \*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 \*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 기사 제보 바랍니다

동창회보는 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엮는 ‘광장’입니다. 알리고 싶거나 공유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이메일 : [snubugo2018@gmail.com](mailto:snubugo2018@gmail.com)

# “첨단 IT기술로 지었어요” 모교 신축교사 준공식... 선농축전도 열려

미주 동문 등의 교구성금 및 서울대학 예산 320억원이 투입된 모교 신축교사가 5월 14일 성대한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된다.

공사기간만 2년여가 걸린 신축 교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약 5,310평 규모다.

이날 준공식으로 모교는 개교 이래 최고의 경사를 맞았다. 용두동 교사(1947~1954), 을지로 교사(1955~1966), 청량리 교사(1967~1971), 종암동 교사(1972~2017)를 거쳐 종암동 신축교사(2018~) 시대를 맞게 돼 2만5천여 동문들에게 가슴



준공식 전날엔 제 27회 선농축전이 모교 운동장에서 ‘흠커밍 데이’ 형식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참가자들에게 도시락과

기념품, 생맥주 등이 제공된다.

한편 미주 총동창연합회는 선농축전과 신축교사 준공식에 회장단을 파견한다. 김민주(21회) 회장을 비롯해 최완섭(22회) 부회장, 강태완(31회) 사무처장 등이 대표로 참석해 미주 동문들의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이와 함께 박부강(15회) 동문 등 선농합창단 단원 5명도 축하공연에 참가한다.



설레이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교과 교실, 수준별 수업실, 실험실, 도서관, 역사관, 체육관, 식당, 시청각실, 수업분석실, 자율학습실 등 대부분 첨단 IT기술로 지어져 교육명소로 자리잡았다.



용두동 교사(1947. 10. 3~) 을지로 교사(1954. 12. 23~) 청량리 교사(1967. 5. 26~)

김민주 회장은 “교육은 외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신축교사의 준공과 함께 학교 측이 사회의 동량이 될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첨단화해 천하부고의 전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미주 총동창연합회는 본국 총동창회와 함께 장학사업, 모교생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 '기부왕' 박병준 · 홍정희 4회 동문 부부 모교 체육관 신축 100만불, 장학기금 10억원



재미 한인기업인 박병준 · 홍정희 동문(4회) 부부가 모교 체육관 신축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부부의 모교 사랑은 또 있다. 지난 2004년 모교에 5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부부는 최근 기금을 10억원으로 증액해 수혜자를 크게 늘리기로 한 것.

박병준 · 홍정희 동문은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과를 함께 다닌 이른바 캠퍼스 커플이다. 박병준 동문은 한 미국인 독지

가의 도움으로 유학길에 올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학위를 땀다. MIT시절 서남표(6회) 동문을 만나 평생의 벗으로 지낸 사연은 지금도 동창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된다.

서남표 동문은 알려진대로 카이스트((KAIST) 총장을 맡아 이 대학을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키운 장본인. 서 동문이 총장 재임시절 박 · 홍 부부가 1000만 달러의 거금을 기부해 한국사회에 놀라움을 안겨줬다.

KAIST 측은 부부의 기부를 기려 신축 연구소 건물을 '박병준 · 홍정희 KI 빌딩'으로 명명한 바 있다.

박 동문은 미 산업제품안전성시험평가연구소(MTL)를 창업해 부를 쌓았다.

부부는 이외도 서울대에 22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등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미주총동창 연합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25회 동기생 일동 -

- 로스앤젤레스  
강인모 봉원표 신경섭 유명식 이기창 이선우  
차학송 최영근 지승규(이상 남성동문)  
고자경 김명중 김명희 김현자 왕부선 고명순  
이묘순 이지영 장정해 조수옥 배현숙 정나비나  
윤영덕(이상 여성동문)
- 미주리 홍영옥                      • 덴버 권성진
- 노스캐롤라이나 강준식 서주석
- 인디애나 심상수                    • 시카고 최용대 박영선
- 워싱턴 D.C. 유병준 이중일
- 필라델피아 조병우                • 시애틀 김옥경
- 애리조나 이형식                    • 뉴저지 김혜연 김현숙
- 하와이 최현숙                      • 미니애폴리스 이진표
- 〈캐나다〉 • 토론토 김정수 신자효
- 몬트리얼 한명숙                    • 밴쿠버 조남수 오운하





##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성황' 신임 회장단 선출, 장학금도 수여

남가주 동창회의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동문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9일 LA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1회 류문기 고문을 비롯해 기별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테이블을 꽉 채웠다.

강태완(31회)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심재호(27회) 회장의 인사에 이어 이완규(6회) 동문의 축사, 2017년도 활동보고, 정봉철(27회) 부회장의 결산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선 이사회가 단독후보로 추천한 김민주(21회) 동문을 2018~2019년도 새 회장단으로 선출했다.

한편 남가주 선농장학회(이사장 김영자)는 신다정(62회) 동문에 장학금을 수여, 격려했다. 신 동문은 명문 UC 샌디에고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원. 동창회보 편집위

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부 순서에는 선농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주옥같은 가곡을 들려줘 송년회를 더욱 뜻깊게 해줬다. 3부 순서에는 유명 코미디언 테리 송이 사회를 맡아 흥겹게 진행됐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줄기회가 포켓 다이어리를, 신임 회장인 김민주 동문이 핑크 소금을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올해 정기총회 및 송년회는 12월 8일(토) 오후 6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745

S. Oxford Ave., Los Angeles)에서 열린다.



2018~2019년도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김민주(21회)	수석 부회장 강태완(31회)
부회장 김종옥(22회)	신용철(29회) 차제명(38회)
총 무 조남중(34회)	재 무 김영태(24회)
감 사 정봉철(27회)	이사장 심재호(27회)

##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LA여행 김두경 '깜짝' 우승



선기회(회장 이석규, 16회)가 주최한 동창회장배 바둑대회가 지난 3월 10일 LA의 사랑방 기원에서 열렸다. 모두 9명의 동문 기사들이 출전해 자웅을 겨룬 결과 영예의 챔피언 트로피는 김두경(16회,

오른쪽) 동문에 돌아갔다. 준우승은 김세중(18회) 동문.

한국에 살고 있는 김두경 동문은 미국 여행 중 바둑대회 소식을 듣고 참가, 뜻하지 않게 우승을 차지, 놀라움을 안겼다.

우승한 김 동문은 부상으로 120달러 상당의 청백로증류수

차.방(25회 봉원표 동문 찬조)을 받았다. 준우승자에게도 100달러 상당의 삼채(김민주 동창회장 찬조)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대회가 끝난 뒤 김 동문은 16회 동기생들을 강남회관으로 초청해 한 톨을 냈다.

당초 이병향(8회) 동문은 대회 참가를 위해 기량을 가다듬었으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기권,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김승환(7회) 동문을 비롯해 김민주 동창회장, 강태완 부회장 등이 대회를 끝까지 지켜봤다.

대회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최광훈(16회), 최진석(16회), 성한석(16회), 김두경, 이석규, 김세중(18회), 안성주(16회) 흥기(18회) 신영찬(17회 이정혜 동문 부군).

## 청구회 골프 토너먼트 민건홍 동문 '메달리스트'



청구회(회장 박흥주, 22회)가 주최한 골프 토너먼트가 지난 3월 17일 샌후안 힐스 골프클럽에서 열려 모두 16명의 골퍼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영예의 메달리스트는 민건홍(16회) 동문이 차지했다. 이어 챔피언 김용주, 장타(남) 강병찬(16회), 장타(여) 서재순(26회), 클로스핀 정봉철(27회) 동문과 김정호(27회) 동문 등이 트로피를 안았다. 전날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주최 측은 대회 연기를 걱정하기도 했으나 대회 당일 다행히 날씨가 화창해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는 후문.

청구회는 7월 초 2차 토너먼트를 갖는다.

대회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박흥주, 김흥숙, 김지백, 권상덕, 민건홍, 서재순, 김승오, 김정호, 신광재, 김용주, 정봉철, 윤재욱, 신용철, 이태운, 이연, 강병찬.

## 한줄기회 '초여름의 향연' 6월 24일 JJ 그랜드 호텔



한줄기회(회장 황주봉, 9회) 임원회가 지난 4월 19일 부에나파크의 조선옥에서 열렸다. 모임은 연례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

이날 모임엔 초대회장을 지낸 류문기(1회) 동문 부부를 포함해 모두 9명이 참석했다. 점심은 류 동문이 전액 부담했다.

올해 한줄기회가 주최하는 '초여름의 향연'은 6월 24일(토) LA 한인타운의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선농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향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회원 각자 기부금을 각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 ▶ 1회 류문기, 6.25 참전 동문 추가

류문기 동문이 6.25 참전동문 명패에 추가로 오르게 됐다. 서울사대부고 동문 가운데 한국전에 참전한 분은 모두 74명. 그러나 류 동문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당초 명단에서 빠졌다. 뒤늦게 행정착오를 알게 된 국방부와 모교/동창회는 류 동문을 추가로 명패에 수록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명단에서 빠진 동문은 류 동문과 함께 역시 1회인 윤수현 동문. 참전 동문은 1회 15명, 2회 24명(이중희 동문 포함), 3회 23명, 4회 12명 등이다. 참전 동문 명단은 신축 캠퍼스에 영구 전시 보존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동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린다.

### ▶ 2회 매달 한차례 정례모임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장소는 가디나의 일식당. 5~6명의 동기들이 거르지 않고 참석해 타 동기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요즘 이중희 동문의 건강 때문에 동기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 ▶ 3회 이인영 동문 '퀸' 등극

이인영 동문이 4년째 거주하고 있는 LA 소재 올림픽 양로병원에서 '퀸'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 초 양로병원 입주자들과 병원 스태프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 동문은 최고 득표를 해 '여왕'으로 등극, '왕관'을 쓰게 된 것. 윤정현(6회) 동문과 김민주(21회) 회장이 동창회 특별사절단(?)으로 이 동문을 방문, 축하를 해줬다.



영어가 능숙한 이 동문은 입주자들의 '귀'와 '입'이 되어 노인들을 극진히 보살피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주한미군 야전사령부와 8군사령부 등지에서 34년을 근무한 이 동문은 근무원(회계 담당) 재직시 그 공로와 업적이 인정돼 미 육군성이 수여하는 훈장을 두 차례나 받았다.

이동문이 방문해 환영회 겸 열렸다.

올해 송년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 자신의 '18번'인 '마이웨이(My Way)'를 열창하겠다고며 십대다운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 ▶ 7회 부부동반 '의무사항'

모두 10명의 동문들이 지난 3월 8일 LA 한인타운의 용궁 중국식당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정례 회합을 가졌다.



팔순이 넘었는데도 모두 건장한 모습이어서 서로들 놀랐다는 후문. 이날 모임의 주제는 단연 고국의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곧 이어 있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예측 등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주최 측은 지난번 모임에서 배우자 출석률이 극히 저조해 이번 모임엔 자율에 맡긴다고 했더니 모두 혼자 참석했다며 다음 번엔 부부동반을 '의무사항'으로 못박겠다고 엄포(?),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 ▶ 15회 안방자 동문댁서 '신년하례'



지난 1월 20일 안방자 동문 댁에서 동기생 16명과 배우자 등 모두 23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매년 1월 세 번째 토요일은 동기생들이 안 동문댁에 모여 새해 덕담을 주고 받는 모임이 전통처럼 굳어졌다고 한다.

### ▶ 16회 김윤중 동문 LA 방문

지난 1월 24일 LA의 강남회관에서 동기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한국의 동기회장 이명희 동문과 시애틀의 이동원 동문이 방문해 환영회 겸 열렸다.



한편 1월 18일에는 한국의 총동창회장을 지낸 김윤종 동문이 남가주를 찾아 청구회 주최 골프 모임에 참석하고 이어 세리토스의 한 식당에서 14명의 동문 및 배우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 동문은 (사)한국산악회 부회장을 지내는 등 체육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독도 현지에서 독도 표지석 재검립식을 주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24일엔 은사 강신호 선생님을 모시고 부에나파크 소재 한 일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올해 88세이신 선생님은 1960년대 부중에서 자리를 가르치셨다.

### ▶ 17회 관리장성서 ‘친교’



지난 2월 2일 LA 한인타운의 관리장성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화합을 다졌다.

이날 모임엔 박준옥, 공순희 동문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송년회에서

만난지 두달이 채 안지났는데도 이처럼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다며 놀라워했다. 역시 17회의 단합이 동기회 가운데 제일이라며 서로를 치켜세웠다.

## 자랑스런 동문 2세 LA시 초대 조달청장 마이클 오



동문 2세가 LA시 초대 조달청장으로 임명돼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마이클 오(한국명 오일규, 39). 18회 오영훈 동문의 장남이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지난달

주류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 정부의 자원 사용을 극대화하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적절히 쓰이도록 조달청장이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며 “마이클은 이미 뉴욕시에서 조달청장의 임무를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했다.

시정부가 밝힌 오씨의 타이틀은 ‘Chief Procurement Officer’(CPO). 시정부 최고위직 가운데 하나다.

당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발탁된 오씨는 뉴욕시 조달청장에 임명돼 연간 14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가세티 LA시장은 뉴욕을 벤치마킹해 CPO자리를 신설, 오씨를 스카우트했다.

오씨의 아버지 오영훈 동문은 “초대 조달청장이라는 자리에 2세가 올랐다는 것이 이민 1세대로선 감격스런 일”이라며 “신생 부서라 힘은 들겠지만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UC버클리 출신의 변호사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축” 창립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



**A&H ARCHITECTS, INC.**

Architecture, Planning and Interiors

STUART AHN | Principal Architect

213.820.0000

stuart.ahn@abarchitectsinc.com

stuartahn502@gmail.com

2560 W. Olympic Blvd., Suite 305, LA, CA 90006



안성주(16회)

▶ 18회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정례모임



정기 모임에 변화를 줬다. 분기마다 한 번씩 모였던 것을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점심시간에 맞춰 모임을 갖기로 한 것.

장소는 LA의 코리아타운 플라자 푸드코트. 회비 없이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기가 아니더라도 동문이라면 모두 환영한다.

▶ 20회 유인선 총동창회장 방문



유인선 본국 총동창회장의 LA 방문을 맞아 동기들이 지난 3월 18일 축하 모임을 가졌다.

유 회장은 3월 15~18일 열린 미주총동창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차 부부동반으로 LA를 찾았다.

유 회장은 미주연합회 발족은 본국 총동창회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동기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유 회장은 연합회가 출범함에 따라 본국 총동창회는 각종 연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기회는 갓 출범한 연합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모임 경비는 김경숙 동문이 전액 부담,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 25회 봉원표 동문 부친상

봉원표(전 LA중앙일보 및 라디오 코리아 사장) 동문의 부친 봉학중님께서 지난 1월 26일 한국 평촌 한림대 병원에서 노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남가주 동창회 단체장 대표

한줄기회	회 장	황주봉(9회)	213-258-5765
선농합창단	단 장	안방자(15회)	323-627-2600
선농장학재단	이사장	최영일(16회)	213-604-5978
선 기 회	회 장	이석규(16회)	310-650-8880
청 구 회	회 장	박흥주(22회)	909-856-6083
다 원 회	회 장	조남중(34회)	213-210-8435

남가주 동창회 기수 대표

1회 류문기 (818-875-1571)	23회 이매자 (213-591-0311)
2회 이증희 (310-710-0536)	24회 김영태 (213-700-5591)
3회 윤응중 (626-652-1953)	25회 차학송 (310-293-2663)
4회 이정화 (310-386-4046)	26회 백남수 (213-392-7633)
5회 송준화 (951-226-4745)	27회 김흥숙 (310-387-7422)
6회 윤정현 (310-619-8257)	28회 김 건 (213-453-3764)
7회 윤병남 (714-396-3941)	29회 신용철 (213-605-1636)
8회 김병천 (818-577-6565)	30회 정재황 (858-397-4587)
9회 공상원 (714-726-3343)	31회 강태완 (213-550-7981)
10회 호성진 (310-415-7260)	32회 이충호 (323-806-6078)
11회 전건식 (213-507-8802)	34회 조남중 (213-210-8435)
12회 김명신 (818-389-1735)	35회 이종신 (310-438-0358)
13회 김경자 (213-389-3133)	36회 김상훈
14회 권상덕 (310-779-3830)	38회 차제명 (213-434-4056)
15회 서기현 (213-604-1669)	39회 정현진 (213-820-1330)
16회 최영일 (213-604-5978)	40회 노정식 (213-216-6429)
17회 계인려 (818-648-8273)	42회 김상진
18회 흥 기 (213-271-6884)	44회 윤성룡 (213-434-2119)
19회 유금혜 (310-827-0231)	45회 조재경 (213-453-9638)
20회 권영렬 (213-272-6262)	47회 구송영
21회 박영훈 (818-808-3931)	48회 윤대규 (213-393-9690)
22회 심종택 (626-643-2307)	62회 권수지 (917-592-6273)

## 선농합창단 대통령상 수상 '영예' 9월 22일 창립 5주년 기념 공연



남가주 선농합창단(단장 안방자)이 지난 2월 8일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노숙자들을 돕는 울타리 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17회)를 지원한 공로가 인정돼 봉사상을 받았다.

한편 올해 창립 5주년을 맞는 합창단은 오는 9월 22일 오

후 5시 정기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새 지휘자 채홍석씨가 부임하고 첫 공연이어서 더욱 기대가 되고 있다. 장소는 미주평안교회 대강당(170 Bimini Pl., Los Angeles).

이와 함께 합창단은 새 단원들을 대거 모집한다. 동문은 물론 배우자 및 친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바라고 있다.

새 지휘자 채홍석씨는 이탈리아 로마와 인디애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 음악인. 단원들은 매주 미주평안교회에서 발성연습과 집중적인 파트별 연습도 지도받고 있다.

합창단은 지난 2월 6일 창단 5주년 기념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초대 지휘자이며 고문이신 윤병남(7회) 동문을 모시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발표회를 가질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합창단은 5월 14일 모교 신축교사 준공식을 맞아 열리는 선농축전에 박부강(16회) 동문 등 단원 5명을 파견한다.

(323) 627-2600 (단장 안방자)

(818) 489-9255 (부단장 김종옥), (513) 226-0355 (총무 부명자)

### 미주총동창연합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Memory Together, Happy Together, Dream Together"*

#### · 서부지역 ·

\* LA : 김경숙 이용애 안영옥 손선행 황승재 권영렬 김종옥 김영한 김택수 최영진 안행일

\* 시애틀 : 한연순 주영련 \* 샌프란시스코 : 남상금

\* 새크라멘토 : 이동우 이권수 \* 덴버 : 조순자 \* 애리조나 : 차응준

#### · 중부지역 ·

\* 시카고 : 구은서 김정한 김태화 고대근 \* 디트로이트 : 권인희 김남철

#### · 동남부지역 ·

\* 애틀랜타 : 문명애

#### · 동부지역 ·

\* 워싱턴 D.C. : 박수인/김인환 김정숙 이영혜 황건한 \* 보스턴 : 나수균 정해연

\* 필라델피아 : 유덕선 함효진 \* 뉴저지 : 조상근 강연준 심상원 윤상영 최규학 곽태훈

\* 뉴욕 : 황은경 김동숙 권일준

- 미주 20회 동창 일동 -

## 부고시절 배운 '영어와 삼각함수'는 내 수호천사



영어와 삼각함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인생의 고비 고비 마다 곁을 지켜줘 내겐 '수호천사'나 다름없다.

삶의 '공식'을 가르쳐주신 분은 고등학교 시절 김창하 선생님이다.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어디서 구하셨는지 영어로 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했다. 훗날 영어에 주눅들지 않고 말하고 쓸 수있게 된 건 오로지 선생님 덕분이었다. "영어와 수학, 화학 세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뇌이셨다. 선생님 말씀이 나를 미국으로까지 이끌줄이야 그땠 상상도 못했지만. 언젠가 저 세상에서 만나뵙게 되면 '고맙고 또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해야겠다.

서울공대 1학년 재학시절 육이오가 났다. 영어와의 첫 대면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전쟁통에서였다. 피란길에 만난 미군장교가 내게 통역자리를 제의한 것. 미 제 7사단 31연대. 거의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기억 한 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영어할 줄 아느냐"는 미군장교의 질문에 "저스트 어 리틀 빗(just a little bit)"이라고 말해주자 그 자리에서 채용됐다.

그 뿐이 아니었다. 한국인 노무자들을 통솔하려면 계급장이 있어야 한다며 '중위'를 달아줬다. 허리에 권총까지 채워주고,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미군장교'로 신분이 급상승했다. 그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다. 최전방에까지 가서 통역노릇을 하려니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목숨은 하나 뿐인데. 다시 피란민 대열에 끼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때 우연히 육군본부 공고문에 눈길이 갔다. 운명이라고 해야할지. '포병장교 모집.' 눈에 확 들어왔다. 잠깐이나마 '미군장교'도 해 봤는데. 나이를 두 살이나 속여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영어와 삼각함수.' 내겐 '식은 죽 퍼먹기'였다. 갑종장교 19기로 당당히 합격한 나는 수도사단 포병 관측장교가 됐다. 포병출신이라면 관측장교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를 알 터. 포 사격을 유도하려면 적진 아주 가까이 가야 한다. 그러니 생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고급장교들은 후방에서 '핑카핑카'하는데 내 처지가 참으로 초라했다. 그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복무에 충실했다. 그런 내게 정부가 보상을 해줬다. '총무무공훈장'을 받은 것.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꿈에 그리던 미국 연수. 그것도 두 차례씩이나. 시험과목 역시 '영어와 삼각함수'였다. 그렇게 미국과 연을 맺었다. 두번째 연수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당시 준장)과 만나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겐 지금도 애국심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입력돼 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자 내게 '무조건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 그때 만일 귀국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글썄~.

대위로 예편한 나는 조폐공사에 취업했다. 시험과목 또한 '영어와 삼각함수.' 참으로 끈질긴 인연이 아닌가. 조폐공사 시절은 내겐 악몽 그 자체였다. 미국행을 결심한 계기가 됐으니 말이다.

당시 모두 14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던 걸로 기억한다. 응시 자격은 공대졸업자와 군필자로 제한됐다. 입사하고 보니 부정이 군대보다 더 심했다. 공대 출신은 극소수, 심지어 군미필자도 여럿 됐다. 결국 내 '입방정'이 탈이 됐다. 공정치 못한 처사에 항의했다가 그만 '짤리고' 말았다. 그것도 군기피자로 내몰려. 무공훈장까지 받은 장교에게 누명을 씌우고 치욕을 안긴 대한민국이 저주스러웠다.

군복무 시절 두 번이나 밟았던 미국 땅. '아메리칸 드림'을 결심했다. 그 때가 1965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진 돈은 달러 45달러. 막상 LA에 오고나니 막막했다. 빌딩 청소 등

막노동을 하며 1년 여를 거지들과 섞여 '흙리스'로 살았다.

처음 잡은 일자리가 '플린트코트(Flintkote)'라는 종이회사다. 몇 블럭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엄청 컸다. 기능공으로 들어갔는데 운 좋게 사장 눈에 띄었다. 당시 종이에 균테균테 구멍이 뚫리는 등 하자가 생겼는데 아무도 원인을 발견 못한 걸 내가 찾아냈다. 조폐공사 시절 경험을 되살려 문제를 해결해 낸 것이 '발탁'의 계기가 된 것이다.

월슨 하비. 사장 이름이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른다.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의 부관을 지냈던 분이다. 어느날 사장이 내게 "미국 대학에서 더 공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뿔뿔이 기뻐했으나 먹고 살기조차 버거운데 무슨 공부~. 사장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봉급은 그대로 줄테니 너는 그저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때의 감격이란. 내게 미국은 마음이 넉넉한 그런 나라였다.

내게 평생직장은 LA카운티 위생환경청(Sanitation District)이다. R&D 담당 엔지니어가 돼 드디어 내 원래 전공을 찾은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좇는 자에게 문이 열려있다고 했는가. 이곳에서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찾아왔다. 사학 명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시빌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땀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부 돈으로.

하지만 내겐 박사 보다 더 소중한 자격증이 있다. 그 어렵다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E). 시빌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두 부문에서다. 정부기관에서 내가 PE라고 하면 다들 경의를 표한다. 그 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카운티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메이저 석유회사인 모빌에 벌금을 물린 '사건'이다. 1970년대 말 토론티스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무 이유없이 설사 구토에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카운티의 연구인력이 총동원됐으나 도무지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내 생각엔 모빌이 주범인 듯 했으나 물증이 없었다.

궁리 끝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헬기 지원 요청을 했다. 내가 PE라고 신분을 밝히자 선뜻 헬기를 보내

줬다. 밤낮으로 정유소 주변을 비행하며 사진을 찍었다. 결국 꼬리가 잡혔다. 모빌이 밤에 몰래 유해 산업폐기물을 방출하는 현장을 잡아낸 것. 결국 거대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내겐 '부업'이 하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인 LACC에서 야간 클래스를 맡아 수학을 가르쳤다. 그땐 미국 대학 학위가 없었는데 그래도 칼리지 측이 내 실력을 인정해 선뜻 자리를 내줬다.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동양인에 차별없이 기꺼이 기회를 준 대학 측의 처사가 고마울 뿐이다. 처음엔 학생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으나 용기를 냈다. 김창하 선생님을 떠올리니 자신도 모르게 힘이 불끈 났다. 낮에는 카운티 엔지니어, 밤에는 칼리지 수학선생. 그런 '이중생활'을 무려 27년 동안이나 했다면 누가 믿을까. 미국선 노력하면

만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 않나 싶다. 돈에 대한 집착보다 성취욕이 더 앞섰다고 자부한다.

카운티에서 정년퇴직한 후 평생의 꿈이었던 나만의 연구소(Standard Testing and Engineering, Inc.)를 차렸다.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연구소를 꾸렸다. 하수도 부식과 방지, 토양 조사, 산업폐수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했다.

이제 내 나이도 '졸수'(90세)에 가까워온다. 지난해말 연구소를 닫을 요량으로 클라이언트 회사들에 서비스 종료 편지를 보냈으나 '항의'가 빗발쳐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다. 그래도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은 아니구나 싶어 한편으로 내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진다.

미국에 등지를 뜬 지도 반세기가 훌쩍 넘는다. 미국은 인종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정직, 근면, 노력하는 사람에겐 꼭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다. 지난 내 삶이 이를 입증해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삶의 파트너가 된 '영어와 삼각함수'. 어쩌면 훗날 '강'을 건널 때까지 부고, 부고, 부고를 외울지도 모르겠다.

정리 | 박용필(18회)

### 충무무공훈장 받은 장교에 병역기피 누명 박사학위보다 소중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 미국유학시절 미군장교부인들과 함께.

뉴욕/뉴저지

이정우 회장 김승호 이사장 ‘연임’  
겨자씨 장학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지난해 12월 15일 5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후라싱 주말 식당에 모여 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총회는 이정우 회장과 김승호 이사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 연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창회 산하 ‘겨자씨 장학회’는 홍다혜양과 이대용군, 이유은양 등 3명에게 각각 1000달러 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혜민(7회) 겨자씨 장학회 회장은 2017년 5월 모교를 방문해 이기성 교장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이은숙 후임 교장은 모교 교장실에서 이대용군과 이은숙 양 두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미주총동창 연합회 창립총회에서 뉴욕이 차기 총회 장소로 결정돼 임원진은 올 한해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됐다. 총회는 내년 9월로 잡혀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4월 월례모임에 참석한 동문들.

연합회 총회엔 권일준(20회) 고문과 김승호 이사장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권 고문은 연합회 감사의 증책을 맡았다.



▲ 지난 3월 5일 모교 교장실에서 열린 겨자씨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왼쪽부터 이유은양, 이은숙 교장, 이대용군.

“축” 창립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

최완섭 (22회)

미주총동창 연합회 수석 부회장

201-983-2858

wansupchoi@gmail.com

## 시카고/일리노이

### 동문들 커뮤니티 봉사활동에 앞장 최병선 목사는 웹 공부방 개설



▲ 시카고 지역 송년모임.

시카고 지역 동문들이 적극적인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한인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권오화(8회) 동문은 서울사대부고 동창회장을 비롯해 한인노인복지이사, 시카고 한인여성회 회장, 이화여대 북미주 총동창회장 등을 거쳐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고문을 지냈다.

지난 2009년엔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이 권 동문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기려 직접 봉사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현재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부이사장직을 맡아 팔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구(조)은성(20회) 동문도 시카고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봉사자. 이화여대 간호대학 출신인 구 동문은 UIC에서 간호학 석사, NP과정을 수료한 베테랑 간호사다.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হাস피탈 등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한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힘을 썼다.

최근 현역에서 은퇴한 구 동문은 올초 시카고 한인회로부터 봉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도 시카고 재미간호사협회 회장, 한인문화회관 부이사장 등을 맡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최병선(22회) 동문은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웹 성경공부방을 개설, 선교에 힘쓰고 있어 이곳 교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물댄동산 웹선교회를 통해 목회자는 물론 일반 신자들도 알기 쉽게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성경보급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보고 있다.

부군이 종합상사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근무 당시 그곳 선교사를 통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진리를 깨달았다. 이후 목회자의 대열에 서기까지 한시도 성경을 놓치 않는 삶을 살았다.

## 댈러스/텍사스

### 문재숙 동문 국악대축제 참가 딸 슬기씨와 가야금 협연 '감동'



▲ 김웅 동창회장 부부와 기념촬영한 문재숙 동문과 딸 이슬기씨(가운데).

인간문화제 문재숙(23회) 명인이 지난 4월 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국악대축제에 출연, 한인들을 들뜨이게 했다.

문 동문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을 보유한 국가무형문화재 23호다. 지난 2015년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어빙센터에서 열린 국악대축제는 문 동문이 딸 이슬기씨와 함께 가야금을 연주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대축제에는 이외도 박애리, 정남훈, 홍성덕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창들과 국가 무형문화재 등 20여 명이 참가해 공연의 퀄리티를 한층 높였다.

문 동문의 딸 이슬기씨도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가야금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실력파다. 이슬기씨의 동생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 여배우 이하니씨.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수로 나와 춘앵무를 공연해 세계인들을 열광시켰다.

문 동문의 오빠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인 문희상 의원, 부군은 국가정보원 제2 차장을 지냈다.

### 기사 제보 바랍니다

동창회보는 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엮는 '광장'입니다. 알리고 싶거나 공유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이메일 : [snubugo2018@gmail.com](mailto:snubugo2018@gmail.com)

### 단출하지만 우애 깊어 채양식 동문 '부부 총무'



이곳 동창회는 단출하지만 우애가 깊기로 정평이 나왔다. 회장은 시애틀 최고참인 16회 한영한 동문이 맡고 있다. 지난 3월 미주 총동창연합회 창립총회에 부부가 참석한 바 있는데 한 동문은 사진에 관한 한 자타가 인정하는 프로급. 3박 4일 총회기간 중 사진촬영을 도맡아 하는 등 굵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존경을 받았다.

사무총장격인 총무는 채양식 부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색적인 동창회로 꼽힌다. 채 동문은 22회, 부인 채자원 동문은 26회다. 그런데도 부인이 총무여서 '서열'이 총무대행인 남편 보다 높다.

채 동문은 SK 시애틀 지사에서 근무한 것이 인연이 돼 아예 이곳에 터를 잡았다. 20여 년 전 수산물 수출 및 식자재 전문 업체인 영 오션(Young Ocean)을 창업, 운영하고 있다. 부부가 동문이어서 동창회 사랑이 남다르다. 동창회보에 섀넌 전면광고를 내 갖 출범한 연합회 재정에 큰 보탬을 줬다.

20회와 25회가 전 동기생 이름으로 미주총동창연합회 창립 축하광고를 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20회는 LA를 비롯해 뉴욕/뉴저지, 워싱턴 D.C., 애틀랜타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기생 41명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 동창회보에 광고를 실었다. 타이틀은 "Memory Together, Happy Together, Dream Together".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키워드로 뽑았다. 동기를 대표한 권일준(뉴욕) 동문은 "연합회 구성은 미주동문들의 최대 숙원이었는데 이번에 성사돼 무척 기쁘다"면서 "연합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 봄 가을 골프 토너먼트 성황 손명희 동문 연합회 부회장 '경사'



해마다 12월 첫 번째 토요일엔 송년파티, 봄 가을 한 번씩은 골프 대회를 여는 게 정례화 되어 있다. 특히 골프 토너먼트엔 거의 20여 동문들이 모여 성황을 이룬다.

지난 3월 미주 총동창연합회엔 손명희(23회) 회장 부부가 참석하는 등 동창회 사랑에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손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연합회 활동 못지 않게 D.C. 동창회도 잘 꾸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동창회 연회비 납부 캠페인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듭니다"**

<납부 방법 및 문의 = 27면 참조>

### "연합회 발전위해 힘 보태겠다" 20·25회 전 동기생 축하광고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숙(LA) 동문은 별도로 회보에 광고를 게재해 갖 출범한 연합회에

힘을 실어줬다. 평소 동창회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김 동문은 굵직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

25회도 미주 전지역에 살고 있는 동문 43명 이름으로 광고를 냈다. 남가주 동창회장을 역임한 차학송 동문은 "연합회가 결성됐다는 소식에 동기생들도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동기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 현 회장단 한 해 더 연임 회장 이강순 서기 정영자 총무 문명애

현 회장단이 한 해 더 연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강순(16회) 회장을 비롯해 정영자(14회) 서기 겸 회계, 문명애(20회) 총무 등 회장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동창회 살림을 꾸려가게 됐다.



지난 1월 6일 이강순 회장 집에서 친교를 겸해 열린 총회에는 동문 14명을 포함한 24명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단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날 모임에는 노홍식(14회) 동문 부부

와 심규상(16회) 동문이 처음 참석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애틀랜타 동창회 발족의 산과역을 맡은 이는 김순홍(13회) 동문. 지난 2012년 은퇴 후 이곳으로 이주해 동창회를 조직, 1,2대 회장

으로 수고하며 틀을 잡았다. 부인 주정숙(16회) 여사와 함께 의사부부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의료봉사도 적극 펼치고 있다.

### 노선배들의 동창회 사랑 남달라 모교 돕기운동에도 적극 참여

동창회가 처음 발족한 해는 1990년이다. 김내섭(9회) 동문과 김태숙(10회) 동문이 각각 회장, 부회장을 맡아 창립됐다.



타지역과는 달리 노선배들의 동창회 사랑이 남다르다. 최고참은 민병권(3회) 동문과 이인세(5회) 동문 부부. 가장 선배인데도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할 만큼 동창회 일에 열정적이다.

항상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는 김응택(8회) 동문 등은 여전히 동창회의 어른들이시다.

특히 변인재(10회) 동문은 동창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

킨 '공신'. 팔순이 내일 모레인데도 여전히 소녀같은 모습으로 후배들을 다독이신다.

동문들의 경조사에는 회원들 대부분이 참여해 가족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모교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2009년에는 모교 럭비

부 돕기 후원금으로 500 달러를 전달했으며, 이듬해엔 모교 총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1000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올해는 이종태(23회) 동문이 회장, 허남숙(22회) 동문이 부회장, 조병욱(25회) 동문이 총무를 맡았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전 동문이 모여 친교를 나누고 있다.

## 김선홍 · 주정숙 동문 부부 아이티 우간다 케냐 의료봉사



은퇴 후의 삶이 더 의미있고 보람이 있다는 부부. 김선홍(13회) 동문과 주정숙(16회) 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의사 부부인 두 분은 은퇴 후가 더 바쁘다. 의

료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까닭이다.

지진 대참사를 겪은 아이티도 지난 2014년과 2016년 각각 10일 일정으로 두 차례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지난해엔 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에 2주 정도 머물며 가난한 이들을 돌봤다. 김 동문과 주 동문은 조지아주에 소재한 비영리자선단체 BMI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여생을 바치고 있다. 부부가 미국에 정착한 것은 1972년. 달랑 트렁크 하나씩 들고 뉴욕 퀸스의 가톨릭 메디컬 센터에서 인턴으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일반내과 및 통증 클리닉을 운영한 부부는 지난 2011년 현업에서 은퇴, 애틀랜타에 둠지를 틀었다.

“의사가 되기 전부터 봉사의 꿈을 키워왔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웃을 돌보며 의미있는 은퇴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랄 뿐입니다.” 주 동문의 희망이자 자신과의 약속이다.

##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 14명에 장학금 6만5000불



동문부부가 부의 사회환원을 앞장서 실천해 한인사회의 롤 모델로 존경받고 있다. 주인공은 강(김)인애(17회) 동문과 에드워드 강(한국명 총무). 부부가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을 설립해 지난해 말 제 1회 장학생을 냈다. 수혜자는 대니얼 조(브라운 의대), 알렉산더 최(컬럼비아), 케이리리(보스턴), 윤영서(하버드) 등 모두 14명. 1인당 5000달러씩 총 6만5000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출했다.

당초 1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는 학생들의 사정을 살펴보다 14명을 뽑게 됐다고 한다. 올해도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1968년 미국에 온 부부는 자신들의 유학생들과 두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재단 설립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교육에 투자하면 반드시 우리 사회에 환원된다는 강한 믿음과 희망이 있다”며 “장학생들이 남을 돕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 창립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

### 닐 도날드 월쉬 신과 나는 대화 I, II, III

“당신은 창조주인 당신을 경배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니, 그러면 그런 종교들은 결국 사기란 말씀입니까? 음, 사기라는 말은 좀 지나치고 너무 매몰찬 표현이다. 나는 그걸 그냥 허구라고 말하고 싶다. 그건 창조주인 나와 상관없이 너희들끼리 만들어 낸 창작물에 불과할 뿐이다.” -신과 나는 대화중에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영태(19회)



##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213-268-2301) **회장 김민주**(21회)  
 수석 부회장 강태완(31회)  
 부회장 김종옥(22회) 신용철(29회) 차제명(38회)  
 총무 조남중(34회) / 재무 김영태(24회)  
 감사 정봉철(27회)

**북가주** (408-759-0581) **회장 홍성호**(36회)

**오레곤** (201-983-2858) **회장 최완섭**(22회)

**시애틀** (818-854-4118) **회장 한영환**(16회)  
 총무 채자원(26회) / 총무대행 채양식(22회)  
 고문 김병관(16회)

**시카고** (630-269-5566) **회장 노성환**(18회)  
 부회장 우희숙(19회) / 총무 고대근(20회)  
 회계 박영선(25회)

**보스턴** (617-733-3709) **회장 최한길**(22회)

**필라델피아** (267-266-2881) **회장 이종태**(23회)  
 부회장 허남숙(22회) / 총무 조병우(25회)

**뉴욕/뉴저지** (914-320-5354) **회장 이정우**(29회)  
 부회장 한근재(24회) / 총무 이명현(31회)  
 고문 권일준(20회) / 이사장 김승호(23회)

**워싱턴 D.C.** (301-983-0000) **회장 손명희**(23회)  
 부회장 강준식(25회) 유병준(25회)  
 총무 정경금(31회) / 감사 정승연(26회)

**애틀랜타** (678-469-7777) **회장 이강순**(16회)  
 총무 문명애(20회)  
 고문 김순홍(13회) 정승원(16회)

**댈러스** (214-284-7572) **회장 김웅**(22회)  
 총무 윤영옥(28회)

**미시건** (248-974-5426) **회장 김남철**(20회)  
 회장 대행 신광용(22회)

**오클라호마** (918-616-3386) **회장 이상강**(21회)

**토론토 (캐나다)** (647-765-2227) **회장 민태기**(27회)  
 총무 장동은(31회) / 회계 김정자(31회)

# “ 축하합니다 ”

## 미주총동창연합회 창립



**Wilshire Shell**  
**Grand Shell / 7-Eleven**  
**Broadway Shell / 7-Eleven**  
**Hollywood Mobil**  
**Imperial Mobil**  
**Western Mobil**

**Corporate Office(Wilshire Shell)**  
 3201 Wilshire Blvd., LA, CA 90010  
 213-388-0300 / 213-748-5687  
 Harrysusan@sbcglobal.net

김경숙(20회)  
 해리 한



# 영원하라 중년아

정종진 / 소설가

“아저씨 젊은이가 왜 주름살이 그렇게 많아요?”

“불혹이 지났으니, 저도 중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웃으면 얼굴에 주름살이 찌글찌글 잡히는 말라깽이 얼굴이었다. 중년이 되어 일만 하면 되니까, 외모의 부담에서 훌쩍 벗어난다. 어떤 여자가 예쁜가 신경 쓸 필요 없고, 하기 싫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애들은 완전히 나에게 의존하고, 아내는 아침저녁으로 아침 비슷한 것도 한다. 아~, 중년은 참 좋은 나이구나.

50대가 되니 숫자가 두려워진다. 하지만 30대의 젊은이와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의 차이가 없으니, 어차피 팔팔한 중년이다. 환갑 다키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실컷 먹고 빨빨 뛰놀아야겠다. 뚜렷한 중년의 나이로 인생은 자꾸 영글어만 간다.

64세인 할아버지 선배가 62세인 할머니와 재혼을 한다고 했다. “아이구 깜짝야. 60이 훌쩍 넘은 늙은 남자가 재혼을 해? 환갑이 넘는 신부? 세상이 휘까닥한 거니, 그 선배 간딩이가 텅텅 부은 거니?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이게 웬 주책들이야?”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세상이 또 바뀌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유행을 탔다. 늙었다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다.

“어머~, 저 남자가 환갑노인이야?”

“환갑이면 그냥 환갑이지, 거기다 노인이란 말은 왜 붙입니까? 어디로 봐서 내가 노인으로 뵈니까?”

노인도 세 층이다. 염색약과 거울을 달고 사는 흑발노인, 외모에 신경 끈 늙으신이, 차라리 잊고 싶은 군더더기 정물 노인이 있다. 은퇴를 하고보니 노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무슨 대화를 하며 소일할까 궁금해졌다. 나도 점잖은 말투가 다듬으며 늙은이 죽에 끼어들어 본다.

“이제 60 몇 살 먹었다고? 그럼 알라를 아이가? 어데서 70도 안 된 새파란 것들이 놀고먹으려 들어?”

늙수그레한 백발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한 수 더 뜬다. “기

가 막혀! 요것들이 은퇴했으면 늙은 줄로 착각하고, 제법 헛기침하려 드네.”

그렇다. 아무래도 나를 노인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젊고, 늙었다고 말하긴 낮간지럽다. 그러니 또 중년이다. 천국여행이니 황천나들이니 요상한 이름 붙이며, 이 친구 저 동창이 장례식 초청장을 보내온다. 젊은이도 죽는데, 중년이라고 죽지 말라는 법 있나? 늙어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는 건데 인간이 어찌겠어? 그 사람은 간경화라는 특별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었고, 이 사람은 운 나쁘게 심장병이란 이상한 병이 들어서, 죽은 채로 발견됐을 뿐인데 뭘 그래? 어쩌다 명이 짧아 그냥 죽은 거지, 늙어서 죽은 건 아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살을 피웠다. “에이~ 하나님, 농담? 죽은 나뭇가지처럼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겉 늙은이 속 능구렁이였던 아브라함은 하갈의 팔자도 망쳐 놓고, 또 100살이 됐을 때, 염치 좋게 사라에게서 아들도 낳았다. 이것은 전혀 놀랄만한 노릇이 아니다. 127세로 사라가 죽자, 137세 된 아브라함은 쯤쨌게 케투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여 6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 그것까지도 놀랄 일이 못된다. 사라가 살아 있을 때는 하갈을 건드리는 것조차 죄의식으로 조심스러웠지만, 한번 불붙은 놋 탕아 끼는 무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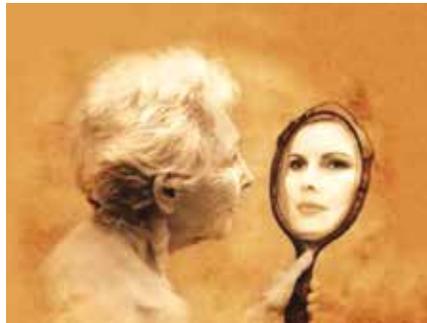
산성 체질 알카리성 여체 따지면서, 아들 낳는 테크닉을 익힌 아브라함은, 후처 케투라 이외에 여러 첩을 두어 많은 아들들을 낳는 대로 낳았다. 적자인 이삭과 서자들이 싸울까봐 걱정이 된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서자들에게 약간의 선물만 주어, 동쪽 땅으로 내몰았다.

팩맨이 피자 잘라먹듯, 세월은 내 인생을 10년씩 한꺼번에 덩석덩석 먹어치운다.

“이제 작년부로 7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어~, 새파란 중년이지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젊은 척 할 필요도 없다. ‘내 나



이가 어때서?’ 라며 따지려 덤빌 건더기는 더 없다. 주위 사람들은 이미 나를 중년으로 분류해 버린다.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의 수명이 자꾸 연장된다. 나는 30년 전에도 중년이고 20년 전에도 중년이었는데, 지금도 아직 중년이다. 미루어보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나는 중년으로 남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년은 일평생 중 가장 좋은 나이이다. 만년 중년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에 내가 노년상태로서 인간 수명이 계속 늘어났다면 어땠을까? 선악과 따먹어 죄 지은 인간이 생명과일 나무에서 생명과까지 훔쳐 먹은 꼴이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죽지도 않고 만년 늙은이 신세로,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면서 계속 살아야 했을 테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니, 중년으로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중년을 만끽하며 살아감은 축복 주신이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언제까지나 중년으로 살다가 넘치는 감사를 안고 영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작가 소개 .....  
 단편소설집 '발목 잡힌 새는 하늘을 본다' '소자들의 병신춤'과 중편소설집 '나비는 단풍잎 밑에서 봄을 부른다' 등이 있다. 경희해외 동포문학상 소설 우수상(2010년), 서울문예 창작협회 소설문학상(2013년), 재외동포문학상 소설 우수상(2014년) 등 수상경력이 있다. 시카고 문인회장을 지냈으며 국제펜클럽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정)정숙(19회) 동문의 부군이다.

## 미주총동창연합회 임원진



**회 장** 김민주 (21회)  
 213-268-2301  
 karis2511@gmail.com



**수석 부회장** 최완섭 (22회)  
 201-983-2858  
 wansupchoi@gmail.com



**부회장** 손명희 (23회)  
 301-983-0000  
 theresarafatjah@gmail.com



**사무처장** 강태완 (31회)  
 213-550-7981  
 sbu1004@yahoo.com



**재 무** 김영태 (24회)  
 213-739-1000  
 kimcpa@yahoo.com



**감 사** 권일준 (20회)  
 917-796-8467  
 iljoonkwon@gmail.com



**고문(서부)** 최진석 (16회)  
 213-321-6428  
 gsclasia@gmail.com



**고문(동부)** 최영태 (19회)  
 201-370-2266  
 ytctax@gmail.com

## What Is Life?

By John Clare

And what is Life? An hour-glass on the run,  
A mist retreating from the morning sun,  
A busy, bustling, still-repeated dream.  
Its length? A minute's pause, a moment's thought.  
And Happiness? A bubble on the stream,  
That in the act of seizing shrinks to naught.

And what is Hope? The puffing gale of morn,  
That of its charms divests the dewy lawn,  
And robs each flow'ret of its gem -and dies;  
A cobweb, hiding disappointment's thorn,  
Which stings more keenly through the thin disguise.

And what is Death? Is still the cause unfound?  
That dark mysterious name of horrid sound?  
A long and lingering sleep the weary crave.  
And Peace? Where can its happiness abound?  
Nowhere at all, save heaven and the grave.

Then what is Life?  
When stripped of its disguise,  
A thing to be desired it cannot be;  
Since everything that meets our foolish eyes  
Gives proof sufficient of its vanity.  
'Tis but a trial all must undergo,  
To teach unthankful mortals how to prize  
That happiness vain man's denied to know,  
Until he's called to claim it in the skies.



존 클레어(1793~1864)  
영국 남부지방, 농장일꾼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외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당대보다 20세기에 와서 위대한 노동자 시인(the greatest laboring-class poet)으로 재평가된 시인이다. 클레어의 시만큼 시골의 자연을 잘 묘사한 작품도 없다고 한다. 7남매 부양으로 궁핍한 환경과 시를 쓰고 싶은 열망이 공존할 수 없어 결국 알코올 중독에 이르렀다.

## 인생은 무엇인가?

존 클레어 / 최완섭(22회) 옮김

인생은 무엇인가? 도망치듯 돌아가는 모래시계,  
아침 햇살에 쫓겨 사라지는 안개,  
바쁘게 움직이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꿈,  
얼마 동안 꾸는 것이냐고?  
1분간 쉬다가 아주 찰나의 순간을 생각하면 될 걸.  
행복? 흐르는 냇물 위의 물거품같은 것이네,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깡이잖아.  
그러면, 희망은 무엇일까?  
새벽에 확하고 지나가는 강풍 한자락이지.  
강풍이 부리는 마술을 봐,  
잔디에 맺힌 이슬을 날려버리는 것을.  
그리고 보석같이 아까운 이슬 방울을 하나씩 빼앗고는 사라져.  
희망은 거미줄같은 것.  
실망이라는 이름의 가시를 숨겨놓고  
뻔한 위장으로 피어내어 그 가시로 날카롭게 찌르고 말지.  
죽음? 아직 왜 죽음이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무섭게 들려오는 저 음침하고 괴이한 소리 맞지?  
죽음은 삶에 지친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길고 깨어나지 않는 잠일뿐이네.  
평화? 평화가 가져다 주는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 아무데도 없어, 하늘 나라와 무덤 말고는.  
그러면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장된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나면,  
무엇을 소망해 볼만한 것도 못돼.  
우리의 어리석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허무한 것들 뿐이니까.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시험과 같은 인생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네.

“축” 창립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

**TIME** TIME is of the ESSENCE  
**TIME REALTY INVESTMENT Co.**

**Brian Y. Shin**

BROKER / REALTOR®  
CalBRE 01867655

Office : (424) 256-2390

Cell : (213) 605-1636

E-mail : brianshinpro@gmail.com



신용철(29회)

Property Management / Commercial Property / Residential Property / Business(사업체) 매매

## Every Day Brings a New Adventure

Wendy Kim, MD



The last time we met, I was a bright eyed, nervous 17 year old high school senior, eager for everything the future had to bring. I thought that I wanted to be a doctor, but really, I was just excited for college and change. I had so many interests and couldn't imagine picking just one thing to do for the rest of my life.

I went to a small liberal arts school in Claremont, California, where my graduating class had 200 people, and my biggest class had 30. It was an idyllic place where you could walk down the middle of the 1/2 square mile campus and recognize everyone you walked past.

I explored many interests over the course of four years, including science, literature, and psychology. I volunteered for Barak Obama's campaign, baby-sat for my professors' children, and worked in a chemistry lab.

I studied abroad in Cape Town, South Africa, where I lived for 8 months, attending a university there, lived with a local family, and rented a car and drove all around southern Africa. I climbed Table Mountain, bungee jumped off Victoria Falls, and went on a safari at Krugar National Park and pet lions.

I went to the World Cup games and rugby games. Most importantly, I forged relationships with people I consider to be some of my closest friends to this day.

After college, I found a job working at the NIH in Washington DC. I packed up and moved across the country without knowing a single soul. I soon found a group of young, like-minded recent graduates to befriend.

During the week, I worked at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where I did genetic research for causes of cancer. On the weekends, I travelled the East Coast. I explored New York City, went skiing in Vermont, ate blue crabs in Maryland.

One day, I thought back to that 17 year old high school student who so earnestly wanted to be a doctor. It was an appealing thought. I applied and matriculated at UC Irvine, thrilled to be able to move back to California. I loved my time on the east coast, but I found myself feeling ready to return home. Medical school was challenging, but it was an exciting time full of learning medicine, learning how to speak with patients, and learning what kind of doctor and person I would become.

Today, it is more than ten years later and I really am a doctor now. I work as an OB/Gyn resident at Cedars Sinai in Los Angeles, and it is everything that I thought it would be. It is in equal parts challenging and invigorating; infuriating and so satisfying.

On any given day, I may be working on Labor and Delivery, delivering a baby or doing a c-section. I may be in surgery to remove ovarian cancer, or working with infertile couples to help them conceive.

Some days, I am in clinic, seeing many pregnant women throughout various stages of their pregnancy, from the women who are just 8 weeks along with a tiny baby the size of a peanut, to the women who are 40 weeks and carrying a full-sized baby around.

I manage their diabetes and their blood pressure medications, I do ultrasounds to measure the size of the baby. I also see non-pregnant gynecologic patients who may have fibroids causing heavy bleeding, or chronic pelvic pain, or incontinence.

It is a privilege to be a source of knowledge and comfort for these women, who are often embarrassed or resigned to their problems.

I'm still excited for everything the future has to bring. There are good days and bad days, calm days and crazy days, but every day brings a new adventure.

닥터 웬디 김은 김건(28회) 동문의 장녀로 미국 최고의 종합병원 중 한곳인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LA 소재)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남가주 선농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축 ” 창 립

서울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



**BONG CHUL JUNG**  
Executive Vice President

**PENTIUS USA, INC**  
14849 E. Northam St., La Mirada, CA 90638  
310-200-7728 www.pentiusautoparts.com

자동차 부품  
(필터, 와이퍼, 기타)



정봉철(27회)

## ◆ 남가주 동창회 결산 공고 ◆

<b>Beginning Balance as of 1/1/2017</b>		<b>22,023.77</b>		
		수입	지출	소계
<b>기금모금</b>	연회비 (명단 참조)	480.00		
	후원금 (명단 참조)	6,932.00		
		<b>7,412.00</b>	<b>0.00</b>	<b>7,412.00</b>
<b>상반기 이사회</b>	이사회비 (명단 참조)	1,100.00		
	이사회 식비		(250.00)	
		<b>1,100.00</b>	<b>(250.00)</b>	<b>850.00</b>
<b>하반기 이사회</b>	이사회비 (명단 참조)	600.00		
	이사회 식비		(297.00)	
		<b>600.00</b>	<b>(297.00)</b>	<b>303.00</b>
<b>동창회 경비</b>	Post Stamp (Domestic x500)		(200.00)	
	Envelope (#10 Window x 500), Printer Paper		(70.06)	
	Envelope (#9 Window x 500), Printer Toner (TN450)		(122.62)	
	Address Label		(71.16)	
	회장단 인수인계 모임		(212.95)	
	California SOI Fee		(20.00)	
		<b>0.00</b>	<b>(696.79)</b>	<b>(696.79)</b>
<b>산하단체 찬조</b>	선교회 트로피		(150.00)	
	한줄기회 찬조 (\$200 + Wine)		(286.13)	
	합창단 울타리선교회 공연찬조		(600.00)	
	청구회 동창회장배 트로피		(160.00)	
		<b>0.00</b>	<b>(1,196.13)</b>	<b>(1,196.13)</b>
<b>회보#43</b>	인쇄비 (16p x500)		(573.56)	
	Post Stamp (Std Ltr \$0.70 x 400)		(280.00)	
		<b>0.00</b>	<b>(853.56)</b>	<b>(853.56)</b>
<b>주소록</b>	인쇄/제본비 (68p x550)		(1,622.37)	
	Envelope (6x9" x500)		(43.35)	
	Post Stamps (4oz \$1.12 x400)		(448.00)	
		<b>0.00</b>	<b>(2,113.72)</b>	<b>(2,113.72)</b>
<b>총회 및 송년회</b>	The Korea Daily Ad (5F)		(600.00)	
	The Korea Times Ad		(550.00)	
	Pink Wine x18		(58.96)	
	Red Wine x18		(88.85)	
	상품/경품		(786.99)	
	Buffet (\$45x100 +15%Svc +Tax)		(5,566.63)	
	Hotel Rooms		(1,102.61)	
	Less Deposit from 2016		500.00	
	Deposit for 12/8/2018		(200.00)	
	추가 Red Wine x12		(32.98)	
	사회자		(550.00)	
	선물		(900.00)	
	봉투		(31.50)	
	떡		(55.00)	
	회비	4,200.00		
	기부금 (명단 참조)	3,840.00		
		<b>8,040.00</b>	<b>(10,023.52)</b>	<b>(1,983.52)</b>
<b>Current Balance as of 12/31/2017</b>		<b>17,152.00</b>	<b>(15,430.72)</b>	<b>23,745.05</b>

Approved by: Lynn Kim CPA, Auditor

## 동창회 연회비 납부 캠페인

#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듭니다”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동창회의 각종 행사, 모교 지원 및 동창회보 발행경비 등으로 소중하게 쓰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희망이 돼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래 첨부한 회비 납부서에 내용을 기입하신 다음 점선 부분을 잘라 봉투에 넣어 체크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연회비 및 후원금(\$11,252)

- 2회 김윤희(\$30) 민재익(\$30) 오영균(\$150)
- 6회 윤정현(\$500) 이완규(\$30)
- 7회 김재형(\$30) 김철구(\$100) 윤병남(\$100)
- 8회 박한영(\$130)
- 9회 박금자(\$50) 최우덕(\$30)
- 10회 조병용(\$30) 호성진(\$200)
- 11회 김영교(\$100)
- 13회 일동(\$512) 김경자(\$700) 정태환(\$30)
- 15회 고춘자(\$100) 부명자(\$30)  
유해성(\$30) 이용한(\$50)
- 16회 김종만(\$300) 민건홍(\$100)  
박부강(\$100) 이석규(\$100) 정재훈(\$200)
- 17회 박성근(\$100) 박영희(\$100)  
박태호(\$100) 신용길(\$130)
- 18회 이기숙(\$1,000) 21회 이관식(\$100)
- 22회 김영숙(\$30) 23회 천배영(\$30)
- 25회 차학송(\$500) 유명식(\$100)
- 27회 김정호(\$200) 김흥숙(\$200)  
심재호(\$200) 이태운(\$200) 정봉철(\$200)
- 28회 이 향(\$30)

### 이사회비(\$1,700)

- 6회 윤정현(\$100) 이완규(\$100) 8회 이병항(\$100)
- 13회 김경자(\$100) 15회 안방자(\$100)
- 16회 이길주(\$100) 이석규(\$100) 최영일(\$200)
- 17회 권중건(\$300) 박준옥(\$100)
- 18회 안영환(\$100) 정종수(\$100)
- 22회 김명자(\$100) 25회 차학송(\$100)

### 총회 및 송년회 찬조

- 현금기부(\$4,200) .....
- 한줄기회(\$200) / 1회 류문기(\$100) / 2회 이중희(\$200) /  
4회 이정화(\$50) / 5회 송준화(\$130) / 6회 김정렬(\$100) 박상규(\$200)  
이기준(\$300) / 7회 장기열(\$100) / 8회 일동(\$500) / 8회 곽성숙(\$100)  
윤재명(\$200) / 10회 이종우(\$150) / 15회 김선홍(\$200) / 16회 일동  
(\$200) 이길주(\$200) 최영일(\$100) / 17회 일동(\$200) 권중건(\$100)  
박준옥(\$200) / 23회 이주화(\$200) / 25회 차학송(\$40) /  
30회 정재환(\$100)
- 물품기부 .....
- 한줄기회(포켓 다이어리) 안방자(15회 캘린더)  
김민주(21회 삼채, 십전대보탕, 차세트 2개)

## 서울사대부중·고 동창회 연회비 및 후원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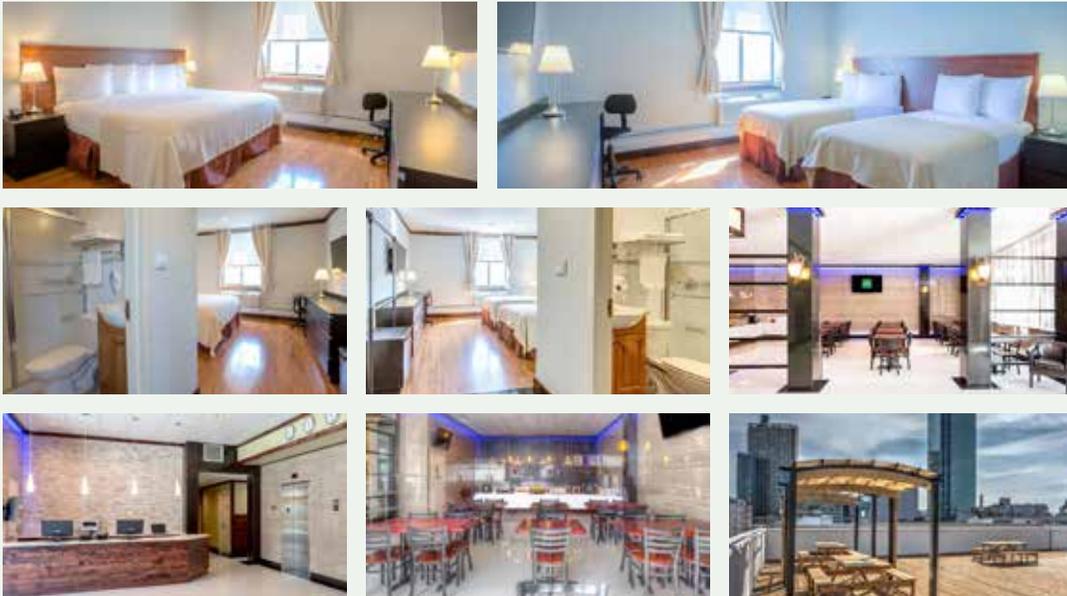
Make Check Payable to: **SNU High School Alumni**

이름	(      회)	(   ) \$30
주소		(   ) \$100
전화		(   ) \$200
이메일		(   ) \$300
		기타금액: \$ _____



#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44-04 21st Street,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  
718-406-9788

[www.lichotelny.com](http://www.lichotelny.com)



김승호(23회) · 김지화